

전남 10년간 174개교 사라져...대학들 해외 학생 유치에 혈안

인구절벽 '지방소멸' 성장동력이 꺼져간다

<2> 학생·학교 급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생 수 급감에 대응할 테스크포스를 꾸렸다. 학교 현장의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되면서다. 학생 수가 줄면 학급 당 학생 수가 줄고 학년 변화가 불가피해지는데다, 교원 정원에도 영향을 미칠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10년만에 30% 넘게 줄어 2018년 고교 졸업생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는 지난 2000년 2만987명이던 출생아 수가 지난 2014년 1만2700명으로 줄었다. 저출산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졌다. 10년 전(2006년)만 해도 13만4100명이던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9만1800명으로 4만2300명 줄었다. 중학교는 같은 기간 70600명에서 56500명으로 1만4000명 감소했다. 고등학교도 비슷해 6만3100명(2011년)이던 학생 수는 오는 2020년이면 4만8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2만1000명이던 고 3 학생도 1만6000명(2020년)으로 줄어든다. 전남도 6만7900명(2015년)이던 고등학생 숫자가 오는 2020년이면 5만14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

남의 경우 10년 전 29만4000명(2006년)에 달했던 학생 수는 올 들어 21만3000명으로 감소했고 2018년도에는 20만8000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온 상태다. 학생이 2명 이하인 초등학교도 분교를 포함 15곳이나 되고 10명 이하인 중학교도 12곳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다. 전남 농·어촌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최근 10년간 174개 초·중·고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쇄된 실정이다. 교육부는 여기에다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겠다고 동·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

하는 한편이다.

전남 교육청 등은 학교의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경우 통합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등을 펴고 있지만 학생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부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교육계 반응이다.

지역 대학도 비상이다. 2018년이면 대학 입학 정원(55만9000명)이 고교 졸업생(54만9000명)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조선대는 지난해 입학정원을 528명 줄였고 호남대도 비슷한 시기,

266명을 줄였다. 광주대는 183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그나마 수도권에 선호하는 학생들로 인해 지역 대학들은 국내 신입생 유치보다 아시아 등 해외 지역 대학생 유치가 대안이라는 실정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인위적 통제와 정원 감축이 아닌, 지역사정에 맞는 특색화 및 지역 사회와 연계, 평생 교육 기관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확한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당내 이견...국민의당 "철회 동참" 압박

사드 배치 갈라진 야권...문재인 "득보다 실 많아" 박지원 "명확한 입장 밝혀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회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면서 더민주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13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풀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용 의사를 고수한 것은 물론 야권의 대응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야권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회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사드 배치 결

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개인성명을 내고 이같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그런 전체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상식적인 갈등 해결 절차조차 밟지 않은 조치"라며 "이번 배치지역 결정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엘리트주의적 결정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결정의 전면 철회와 함께 더민주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더민주가 조속히 반대에 동참하는 길로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승용 비대위원은 "민주 정부라면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며 "더민주의 확실한 입장을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준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민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김경록 대변인은 "국회 비준동의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점"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朴대통령, 리커창 만날까 아셈회의 참석 오늘 몽골 출국

<중국 총리>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차 몽골을 방문한다고 13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 방문은 오래 전 계획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분쟁 판결 이후 박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여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로 지역안보 이슈가 공식 의제는 아니다. 하지만,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ASEM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올해

하반기 첫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

일단 박 대통령은 ASEM에서 지역 경제 문제와 관련,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일부 있다.

다만, 사드 자체가 정당한 자위적 방어를 위한 조치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국제회의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

이와 관련, 사드 문제가 풀린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이 국제회의에 같이 참석하는 만큼 ASEM을 무대로 한중 양자 차

원에서 접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한중간 정상회담을 확정해놓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슈인 남중국해 문제는 오는 16일 진행되는 ASEM 리트리트(retreat, 소규모 비공식 토론 형식을 지칭) 세션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ASEM 계기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리가 당사국이 아닌 데다 회의 공식 의제에 포함될 사항도 아니라는 점에서다.

/박지용기자 jkpark@kwangju.co.kr

웁~ 호랑이·뱀보다 무서운 모기 한마리



김은영

'그림 생각'

(161) 모기

"맹호가 울밭에서 으르렁대도/나는 코골며 잠잘 수 있고/간 벼미 처마 끝에 걸려있어도/누워서 꿈대는 꿀 볼 수 있지만/모기 한 마리 웅하고 쿵가에 들러오면/기가 질려 속이 타고 간담이 서늘하단다..." <정약용 작 '증문(脛蚊)중에서>

2백여 년 전 다산이 토론했듯, 여름 나기를 힘들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모기 인 것 같다. 비를 좋아해서 기다렸던 장마는 폭염에 밀려 오라가락하고, 그로 인해 습기 많은 열대야가 불쾌지수를 높이지만 웅 하고 달려드는 모

기 한 마리에 비할 바 아니다. 모기가 옮긴다는 지카 바이러스나 일본 뇌염을 퍼뜨리기 위해 모기약과 모기 기피제를 꺼내다가도 혹시 가슴기살균제처럼 밝혀지지 않은 유해물질이 있을까봐 그도 망설여진다.

장욱진 화백(1917~1990)도 모기를 피하고 싶어했나 보다. 소박한 방 한 가운데 모기를 피해 모기장을 친 뒤 마음 편하게 팔 베고 누운 인물을 담은 장욱진 화백의 '모기장'(1956년 작)은 1950년대 중반의 어려운 생활 형편에 또 자족한다는 화가의 독백 같은 도가품의 작품으로 꼽히는 그림이다. 모기장 가장자리에 선묘 윤곽만으로 묘사한 나무등잔과 밥그릇 하나, 작은 손등지가 주인공에게 꼭 필요한 세간인 듯 소박한 모습이다.

내년이면 탄생 1백주년을 맞이하는 화백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폭넓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화가로 손



장욱진작 '모기장'(1956년)

꼽힌다. 일견 아동화 같기도 하지만 자연의 넉넉함과 일상의 따뜻함을 치밀한 조형적 구성과 신선한 시각으로 표현해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씻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문 '장욱진-모더니스트 민화장(民畵匠)의 저자 김형국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일생을 맑은 동심으로 살다 간 화가의 예술성을 일상성과 초월성의 조화"로 집약하고 "그의 그림에서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그림이 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일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환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임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